AI digest 2026-11-15

11월 15일 AI 아침 브리핑

국내 소식을 먼저, 건설·BIM 관련 AI와 국내 연구 성과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ETRI, '사람 맞춤 행동'까지 평가하는 로봇 AI 벤치마크 '트리니티' 공개

구분: 국내 AI 연구 / 2026-11-14, 한국인공지능신문 보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로봇·AI 에이전트가 환경뿐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특성까지 고려해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벤치마크 '트리니티(Trinity)'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식습관·알레르기·종교적 식이조건·취미 등 151가지 사용자 조건과 관련 물체 95종을 가상 환경에 배치해 작업계획 능력을 시험합니다.
- 평가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로봇이 물체를 정확히 찾아 옮겨도 사용자에게 맞지 않는 물건(예: 채식 사용자에게 고기)을 골랐다면 실패로 처리하고, 오류 원인을 사용자 특성 이해 실패·환경 탐색 실패·수행 불가 행동 계획으로 나눠 분석합니다. ETRI가 LLM 기반 에이전트를 평가한 결과 환경 이해 능력과 사용자 요구 반영 능력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 연구는 자연어처리 학회 EMNLP 2026 Findings에서 10월 발표됐고, 코드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한계로는 음식·음료 중심의 가상 환경 평가라는 점을 ETRI도 인정하며, 청소·정리·안전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 주의: 벤치마크 자체는 공개됐지만 다른 연구팀의 독립 활용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제안 (BIM 연계): '완료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 조건 적합성'까지 평가하는 설계는 BIM 자동 검토 시스템의 평가 지표를 짤 때도 참고할 관점입니다. 발주자별 기준 차이를 조건화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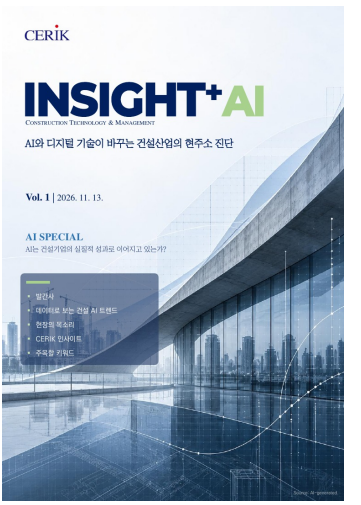
이미지: ETRI가 제공한 트리니티 평가 화면 사진. 출처: https://www.k-a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85

2. 건산연 '인사이트+ AI' 창간호: 건설 AI 확산, 도입률은 9~16%에 그쳐

구분: 건설·BIM AI / 2026-11-14, 아시아타임즈 보도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인용)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인사이트+ AI' 창간호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관련 기사에서 AI가 언급된 비율이 2020년 5.1%에서 올해 22.8%로 4배 이상 늘었고, 건설 AI 특허 출원도 2020년 50건에서 2024년 1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 반면 실제 도입은 더딥니다. 국가 통계 조사에서 건설업 AI 도입률은 9~1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조사 이용률은 15.9%로 금융·보험업(63.1%), 정보통신업(56.0%)과 격차가 큽니다.
-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RICS) 조사에서 건설 전문가의 약 67%가 어떤 형태로든 AI를 쓴다고 답했지만, 특정 공정에서 정기 사용은 19%, 여러 공정 확대는 약 4%, 기업 전체 시스템 통합은 1% 미만이었습니다. 건산연은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방식과 데이터 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의: 통계들의 조사 시점과 표본이 각각 달라 단일 수치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본 브리핑에서 다룬 우미건설·롯데건설 사례가 '시험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분석과 맞물립니다.

제안 (BIM 연계): '도입과 확산의 간극'은 BIM 도입 초기와 같은 패턴입니다. 정기 사용 19%·전사 통합 1% 미만 수치는 국내 BIM·AI 확산 전략 토론에서 인용할 만한 기준점입니다.



이미지: 건설산업연구원이 배포한 보고서 표지. 기사에 실린 AI 생성 삽화는 제외했습니다. 출처: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61113500059 , https://cerik.re.kr/report/briefing/3135

3. 서울 초·중학생 300명, AI 서·논술형 채점 '채움AI' 체험

구분: 국내 교육 AI / 2026-11-14, 연합뉴스 보도

- 서울시교육청이 14일 서울경동초등학교와 성산중학교에서 초등 6학년·중등 3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탐구·토론·글쓰기와 AI 채점 체험을 묶은 '2026 생각을 쓰는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 평가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가 쓰였습니다. 학생 답안을 AI가 채점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해 교사의 평가 업무를 보조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과 내신의 서·논술형 도입·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열린 행사로, AI 채점의 공정성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 주의: 체험 행사 단계로, 채움AI의 채점 정확도·공정성 검증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 (BIM 연계): AI 초안 채점 + 사람 검토라는 교육 평가 구조는 BIM 자동 검토에서 AI 1차 검토-전문가 판정 구조와 같은 설계입니다. 공정성 논의의 전개를 지켜볼 만합니다.



이미지: 기사에 실린 미래 대입제도 토론회 자료 사진(8월 촬영분). 캠프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3094100530